

‘벼랑 끝’ 가구, 서류 없이도 이틀내 긴급지원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명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

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대신 지원 후 1달 이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사후 적정성 심사에서도 현장 확인을 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 고이나 중과실이 있거나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절차 개선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던 50대 남성이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

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간소화 1개월 생계·1회 의료비 지원 소득·재산은 사후 적정성 심사



이 남성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고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 찾았다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복지부는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과 접수를 받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의 복지 이·통장이 현장 확인을 돕는 방식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혼위기 판단 기준을 낮추고 휴폐업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상 실직자를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의 인정 기준을 낮추고 대상자의 금융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의 ‘2011~201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신청해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는 평균 77%였다.

이 가운데 실제 긴급지원을 받은 비율(집행률)은 64%에 그쳤다. 특히 2013년 이 사업에는 본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더해 총 9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 집행률은 55.2%에 불과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어르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이 10일 동구 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13일까지)할 예정이다. <동구청 제공>

“효몸 어르신, 효 출동대가 갑니다”

광주 동구, 생필품 전달·집 수리 등 1705건 민원 해결

효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때론 말동무가, 때론 길동무가 돼 드리는 게 ‘효(孝) 출동대’의 역할입니다.

지나해부터 광주시 동구에서 특수시책(노인복지사업)사업으로 운영 중인 ‘효 출동대’가 독거노인의 말벗이자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민 등 자원봉사자 220명으로 구성된 ‘효 출동대’는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가정을 봉사원이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음식만들기나 생활필수품 구입·고장난 가전 제품 수리·집 수리·도배 및 장판교체 등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서비스에 포함된다. ‘효 출동대’는 지난해 170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효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효 출동대’가 수족(手足)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효 출동대’는 올해부터 효출동 차량이용과 가사지원·일반민원처리 대행 등 서비스 지원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편의를 제공,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효 출동대’ 이용 문의는 062-232-4950.

동구 관계자는 “생각보다 호응이 커 뿌듯함을 느낀다. 전화 한통화만 주면 언제든 달려가 노인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 서구, 중풍·관절염 등 ‘한의약 건강 교실’ 운영

광주시 서구는 10일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간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단순한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한의학적 건강증진 개념을 공공보건사업에 적용,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함께 건강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갱년기 몸다스리기 교실, 중풍 예방교실, 관절염교실, 키쭉쭉 마음튼튼 교실, 한방 금연교실, 난임극복교실 등 10가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3개월 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갱년기 몸다스리기 교실은 동산대 한방병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장년기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회원모집은 사전검사를 위해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마다 운영기간, 모집대상 등 세부 사항이 다르므로 구청이나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한 뒤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350-4120~1. /김형호기자 khh@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기발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 김사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프리미엄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